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내장산 단풍 + 농촌 체험 '농뚜레일' 7일 개시

가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정읍시가 내장산 단풍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특별 기차여행 상품 '농뚜레일 투어'를 선보인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투어를 통해 내장산 단풍길, 쌍화차거리, 막걸리 양조장 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풍 명소인 내장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단풍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정읍 9경 중 하나인 쌍화차거리를 찾아 전통 보양음료인 쌍화차를 체험하고, 한국술도에서 막걸리를 직접 거르고 시음하는 등 지역 농촌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도 마련돼 있다.

'농뚜레일'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제7회 고창 농악한마당축제' 성료

'제7회 고창농악한마당축제'가 고창농악단연합회(회장 서정순)와 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 공동 주관으로 지난 2일 묘양성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에는 13개 읍·면 농악단이 모두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첫 번째 순서는

고수면 마당바우농악단을 시작으로 흥덕면 배풍산농악단, 성내면 대성농악단, 고창읍 고인돌농악단, 아산면 성불봉농악단, 부안면 수강농악단, 무장면 무장읍성농악단, 대신면 태봉농악단, 공음면 참나무정농악단, 신림면 수산봉농악단, 해리면 해풍농악단, 성송면 구황산농악단, 상하면 장사농악단 순으로 진행되었다. 13개 읍·면 농악단은 고창 농악 특유의 흥과 멋을 군민과 관광객에게 맘껏 선보이며 고창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유산 도시 브랜드 높였다

고창모양성제 성료... 전 세대가 참여, 머무는 체류형 · 참여형 · 완성형 축제 운영

'고창愛 빠지다, 모양愛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펼쳐진 제52회 고창모양성제가 지난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모양성제는 '완성형 축제'라는 평가에 걸맞게, 전 세대가 참여하고 머무는 체류형 ·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전통 예술체험마을, 꽃정원, 그린마루까지 공간을 확장해 관람 동선을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방문객이 각 공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는 고창읍성의 전통을 계승하며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QR탐험대 '사랑愛 빠진 모양', 릴스 챌린지 답성놀이 홍보관 등 MZ세대 맞춤 콘텐츠가 SNS 확산 효과를 이끌어내며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먹거리존 · 힐링쉼터 · 패밀리존 운영으로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편의를 높였다. 지역 상인이 직접 참여한 향토음식 부스와 폴리마켓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일화용 대신 대화용기를 사용하여 ESG 실천형 운영으로 축제의 품격과 완성

도를 한층 높였다.

이번 축제에는 외국인 인플루언서, 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며 축제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였다. 세계유산 고창읍성을 무대로 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역사와 감성'이 공존하는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상공인 · 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정읍시, 222곳 혜택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 · 공원 · 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금(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된 요금으로 부과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번 11월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4회 수소의 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군 단위 최초 수소도시 실현,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 모델로 전국 우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수소の日 기념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군이 군 단위 지자체로는 이례적으로 수소 생산 · 저장 · 활용의 전 주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군은 지난 2024년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공로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은 쾌거다.

이날 기념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소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지자체, 기업 등을 포상해 수소경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다.

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스

템 구축, 수소청소차 · 수소버스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수소충전소 2개소 운영,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전환 추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분산형 수소 생태계 모델을 실현해 왔다.

또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산업기반 확충을 병행하며 농업 · 에너지 · 산업이 연계된 부안형 수소경제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김성진기자



군민과 함께 동학 정신의 가치 되새겨

부안군,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역사 특강' 개최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역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부안 동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들이 역사 속 부안의 위상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함께 배우는 뜻깊은 자리로, 부안군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내빈 소개, 군수의 환영사 및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강민성 강사가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및 백산대회의 역사적 가치 조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1800년대 동학농민혁명 이전 조선의 시대적 배경부터 혁

명의 단계별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 백산대회의 역사적 · 장소적 의미와 집강소(新軍) 설치, '관민상화(官民相化)' 정신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운 농민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에 끼친 영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짚어주었다.

이어 이선아 강사는 '동학농민혁명 전 · 후 부안의 사회상과 항일야령'을 주제로, '홍제알기'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과 연계된 부안 군민들의 생활상 및 문화, 물가 변동에 따른 시대적 상황, 부안 동학을 이끌었던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부안=김성진기자

정읍시, 8일 장애인평생학습 소통한마당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배움으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정읍에서 열린다.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배움으로 잇는 우리, 함께 걷는 정읍'을 주제로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정읍공무리스포츠센터에서 2025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배움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성

과공유회를 비롯해 평생학습체험과 장애인식개선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장애인 학습자 작품전시회, 평생학습 및 서커스작품 공연, 시민 참여형 폴리마켓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 공방, 학원, 카페 등에서 장애인 학습자들이 직접 배우고 익힌 지역상생형 평생학습 성과물들이 전시돼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11일까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접수

정읍시가 공직사회에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을 말한다.

시는 공직사회에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 소극행정을 예방 · 근절하기 위해 매년 상 · 하반기로 나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현장 컨설팅형 기술감사제 운영', '정읍시립요양원 게스트하우스 신축' 등 6건의 사례가 선정된 바 있다.

우수공무원(팀)을 추천하고 싶은 시민은 11월 11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 게시판의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추천서는 홈페이지는 물론 이메일(pluhades@koreakr),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